

연초 물가 ‘서민 잡네’

학원비·기름값 뽐박질에 채소·공산품값도 줄줄이 인상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쌍둥이를 둔 이은숙(39·남구 봉선동)씨는 휘발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새해들어 학원비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달 10만원이었던 보습학원비가 15만원으로 5만원이나 올랐고 피아노학원비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아이의 학원비와 방통학습 비용을 합치면 자녀 교육비 지출이 한 달 90만원을 훌쩍 넘어서게 됐다.

이씨는 “채소값이 다시 오르고 있고 연초부터 기름값, 과자 등 각종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접해 장보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새해를 기다렸다는 듯이 음료와 스낵 가격이 오르고 농수산품값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도시가스요금과 휘발유 값도 오르는 등 생활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치솟아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2년 4개월만에 1800원대를 넘어섰고, 도시가스요금도 지난 1일부터 평균 5.3%가 올라 다음달부터는 지역난방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지난해 말 설당값 인상 여파로 일부 식음료 업체들이 커피와 음료, 스낵 등 식음료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나섰고 주춤했던 농수산품 가격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네슬레와 코카콜라가 1월 1일을 기해 전격적으로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실제 네슬레는 1일부터 자사의 커피 제품인 테이타스 초이스 등을 품목에 따라 8~12%가량, 평균 10% 인상했다. 코카콜라음료도 2일 코카콜라와 코카콜라 제로, 코크라이트, 코카콜라 체리 등 4개 브랜드 13개 품목 공급가격을 4.2~8.6% 인상했다.

이에 앞서 오뚜기도 지난달 23일 당면 가격을 17% 올렸다.

오리온 등 제과업체들은 이르면 다음달 초 초코파이를 비롯한 과자 값을 7~8%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탕에 이어 밀가루 값까지 오르면서 빵·라면·자장면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제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게 돼 식탁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면서 채소가격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경우 양파(상품·1kg)가 일주일 사이 50%가 오르면서 1500원에 판매중이며, 대파(ㄱ)도 50% 오른 4500원에 팔리고 있다.

또 일주일 전 3700원에 판매됐던 배추(상품·1포기)도 22%가 올라 4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금치(상품·1kg)도 3500원으로 17%나 올랐다.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베트남서 ‘의료 新한류’

하노이 의료관광 설명회·진료 등 시장 개척

화순전남대병원이 한국 대학병원으로 최초로 신(新) 한류(韓流) 붐이 일고 있는 베트남의 의료관광 시장 개척에 나섰다.

화순전남대병원은 4일 하노이 현지 의료 관광설명회를 연데 이어 5일 현지 진료, 6일 베트남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의료시장 개척을 본격화한다.

국내 국립대학병원 최초로 JCI 인증(국제의료기관평가)을 획득한 화순전남대병원은 관절센터 위탁임상과 핵의학과 병합외과 교수, 무릎관절 분야 정우빈 전문의가 참가해 관절치료를 전문성과 암 치료의 최신기술을 하노이 의과대학에서 소개한다.

또 5일 VIP 환자를 진료 상담하고, 6일에는 베트남 유명 온라인 뉴스 매체인 'Vietnamnet'과 하노이TV 매체 인터뷰도 진행한다. 아울러 동행한 한국 의료 컨설팅팀은 의료관광을 위한 현지 에이전시와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해당 언어 사용 전담 의료 코디네이터를 두고 진료하면서 여행업계와 연계, 외국 환자와 그 가족의 지역 관광·휴양명소들도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 식단 개발과 외국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원 측은 올해 50명의

베트남 환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연간 1만5000명의 의료관광객이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해 국내 국립대학병원 최초로 미국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관절수술교육센터로 인증을 받았다.

유택림 관절센터 소장은 “한류 열풍이 부는 베트남에서 한국의 관절치료를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번 설명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현지 환자 직접진료를 통해 한국 관절 수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해외기업 100개 유치 ‘시동’

내주까지 미·일·중 등 자문위원 19명 선정키로

광주시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유력 재외동포를 해외기업 유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4일 “올해 100개 기업을 광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해 다음주까지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각 국가별로 19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명무실한 상태인 기존 5명의 해외자문위원에 14명

을 추가해 자문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해외자문위원들은 해당지역에서 광주의 산업 및 경제적인 특성은 물론 광주시가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투자진흥업체의 정보를 광주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분기마다 일정수당이

지급되고, 투자가 이뤄지면 최대 투자액의 1만분의 7까지 성과금을 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100개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500개 업체 명단을 작성해 유치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자문위원들을 포함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주재원 등 각종 채널을 동원해 연초부터 기업과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공무원 보수 5.1% 인상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기본급을 종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해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54%에서 65%로 확대한다. /연협뉴스



전남도 글로벌 인재 44명 해외 연수

전남도는 4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글로벌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선발한 44명의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외어학 연수 사전설명회를 가졌다. 이 번에 선발된 44명은 12일부터 한 달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주립대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해 어학연수를 하게된다.

<전남도 제공>

관광공사, 겨울철 가볼만한 곳 전남 11곳 선정

슬로시티 완도·해남 땅끝마을 등

전남이 겨울철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겨울철 국내 관광 활성화 캠페인’에 따라 소개한 국내 겨울 여행상품과 여행지에 전남 여행상품이 가장 많이 선정됐다.

국내 여행사가 출시한 여행상품 가운데 각 지자체와 관광공사가 추천한 상품을 소개하는 ‘내나라 여행 프로

젝트’의 경우 전체 20개 상품 중 ‘슬로 시티 완도와 아름다운 청산도의 향기로 떠나는 낭만여행’, ‘슬로시티 증도로 떠나는 일상탈출 여행’, ‘담양 죽녹원과 송광사를 둘러보는 자연여행’, ‘땅끝마을로 떠나는 체험여행’, ‘순천 여행상품이 가장 많이 선정됐다.’

또 여행작가들이 추천한 ‘겨울철

가볼만한 20곳’에도 해남 미항사와 화순 운주사가 산사여행 추천지로 소개되는가 하면 순천만은 탐조 여행지, 겨울 제철음식 여행지에 담양(대동방)·장흥(매생이)·무안(세발낙지와 참송어) 등 6곳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밖에도 자체적으로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상품 13개’를 마련,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최종호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전해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여행상품을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올해도 ‘소통’은 안될 모양이다

남은 음식 재사용 많은 식당만 모인 곳

광주시 '원스푸드 시범거리' 2~3곳 조성

광주시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는 음식점만 모인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4일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는 음식점들이 모인 이른바 ‘원스푸드(ONCE Food) 시범거리’를 올해 안에 2~3곳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스푸드는 ‘Once Nice Clean Enjoy Food’의 약칭으로 ‘딱 한번 사용한 음식은 맛도 있고 깨끗하며 누구나 즐기길 원한다’는 뜻이다. 광주시는 원스푸드 시범거리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주고 해당 음식점에는 위생

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 20곳을 ‘웰빙 음식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웰빙음식점에도 소형 찬기 등 업소별 맞춤형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업소당 50만원), 웰빙 음식점 지정서를 교부하는 한편 시설개선자금도 융자해줄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범업소와 대형음식점 등 20곳의 주방에 110만원을 지원해 폐쇄회로 카메라(CCTV)를 설치해줄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티켓몽키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http://www.t-mong.co.kr

50%~90%

지금 티켓몽키에서는 **할인권 무료 증정**

티켓몽키 가입회원 모든 분들께 팝아티스트 키스해링 특별전 **2,000원 할인권 무료!**

언제까지? 2011년 1월 3일까지!
지금 바로 티켓몽키의 회원이 되어보세요.

티켓몽키 입점 문의 **070-7581-7766**

티켓몽키에서는 광주의 모든 곳을 50%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NAVER 티켓몽키 를 검색해보세요.

2009년~2010년 서울대 12명 합격

중·고 국·영·수 전문학원

양영,대성의 서울대반 강사진이 직접 수업합니다.
그룹반은 별도로 상담하세요!!

강사진

- 언어(최복수)외 2명
- 영어(신경찬)외 2명
- 수학(주석진)외 2명

일곡동 국민학원
☎(062) 574-0101

봉선동 국민영재학원
☎(062) 672-0483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1월 8일(토) 주말반 개강

1월 10일(월) 주·야간반 개강

1차시험 (5월29일)대비

본원 교수진 동영상 강 | www.seinedu.com 의 | www.egosi.co.kr

★농업인·축산인·임업인 특별혜택★

◆언제든지 청강 환영!

[서승철경영학박사, 김세미농학석사, 윤종자(전)풍관원, 초대농통사업회장, 손송운, 송상호, 전창훈교수진]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손송운 교수팀 직강

접농업전문학원 226-5050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동부경찰서~전일빌딩) 학원가입구, 광주고시학원건물1층

since 1985.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정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20기) 1월 21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장터 4번출구 추천회관 뒷편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 기간: 매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絡학/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 가정생활 진단(자가)상식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중의계(5년),결입증과 중국 침구사, 국가자격증 취득가능(해외사용가능)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